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21 불교 혼례



▶한줄 요약
근대 초 불교 혼례가 처음 선을 보인 뒤 불자들에게 널리 수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기독교 혼례에 비해 불교혼례는 새롭게 만든 내용인데다 이를 전파할 적극적인 주체가 부족했기에 단시일에 확산되지 못했으나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합리성 추구 불교혼례…'스몰웨딩' 트렌드 닮아



불광사 불교 혼례 ©마인드디자인



강원도 삼운사 사찰벽화에 그려진 선혜선인과 구리 선녀 ©삼운사

최초의 화혼식(花婚式)

근대 최초의 불교 혼례는 1918년 2월 조계사의 전신인 각황사(覺皇寺)에서 치러졌다. 처음 행하는 불교식 혼례라 장안의 화제가 되어, 몰려든 구경꾼이 일천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신문에는 사모관대를 갖춘 신랑, 족두리에 장삼을 입은 신부가 경건한 표정으로 부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이 실렸다. 이 혼례는 역사학자 이능화(李能和)가 1917년에 만든 '의정불식화혼법(擬定佛式花婚法)' 에 따라 처음 행한 것이었다.

당시 혼례를 둘러싼 상황은 개항 이후 기독교 문물의 본격적인 유입과 함께, 이른바 '예배당결혼식' 이 혼례 간소화를 위한 방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운 전통 혼례는 계몽운동가들로부터 타파해야 할 구습으로 여겨졌으며, 1888년 정동교회에서 아펜젤러의 주례로 치러진 기독교식 혼례는 신식결혼의 시발점이 되었다.

혼례개혁의 하나로 가난한 이들의 복수결혼(福手結婚) · 작수성례(酌水成禮) 방식을 따르는 이들도 많았다. 복수(福手)는 '복을 부르는 손' 이라는 말로, 머리를 얹어주고 상투를 틀어주는 이를 일컫는다. 따라서 복수결혼이란 친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랑은 신부 머리의 쪽을 지어주고, 신부는 신랑 상투를 틀어줌으로써 서로 복수가 되는 것을 뜻한다. 정화수를 떠 놓고 서로 머리를 올려줌으로써 혼례를 치른다고 하여 '작수성례' 라고도 불렀다.

이능화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의례를 신속히 정비해야 불교가 타 종교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간파하고, 몸소 불교 혼례를 제정하여 실천해나가고자 한 것이다. 그는 부처님 본생담인 '연등불 수기' 설화를 비롯해 〈대방광불화엄경〉에서 위덕 태자와 묘덕 동녀가 혼인해 부처님께 예배드린 설화, 태국의 혼례 등을 참조해 절차와 내용을 구성한 것이라 밝혔다.

'의정불식화혼법' 에 담긴 불교 혼례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살필 수 있다. 첫째, 불교에 귀의하는 가운데 부처님께 혼례를 고하고 증명을 청하는 구도를 지녔다는 점이다. 이는 삼보의 가피 속에 부부인연을 맺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리라 맹세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오분향 · 삼귀의 · 사홍서원 · 발원문 · 찬불게 등을 염송하는 가운데, 주례법사가 부처님께 두 사람의 혼인을 고하는 설송(說頌)이 의례의 핵심을 이룬다.

둘째, 신랑 · 신부가 부처님께 꽃을 바치며 부부의 전생 인연을 새기도록 한 점이다. 이는 본생담에 근거한 것으로, 석가모니가 아득한 전생의 선혜선인(善慧仙人) 시절에 연등불께 바칠 연꽃을 애타게 구하던 중, 구리 선녀와 내생의 혼인을 언약하고 연꽃 공양을 한 설화에서 비롯되었다. 선인은 자신의 다섯 송이와 선녀가 부탁한 두 송이 꽃을 연등불께 바치고, 내세에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것이다. 아득한 세월이 지나 선혜선인은 태자 싯다르타, 구리 선녀는 태자비 야소다라로 만나게 된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혼례를 '화혼식(花婚式)' 이라 부른다.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문(告佛文)에서도 "두 사람은 부처님의 옛 고사를 본받아 위 없는 도를 성취하기를 다짐하였고, 일곱 송이 꽃을 바쳐 영원한 인연을 약속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처럼 부처님께 꽃을 바치는 것은, 전생의 인연을 현세에서 꽃피우며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는 다짐이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 1917년 '의정불식화환법' 시행
> 용성 스님, 남녀평등 의식 소개
> 불전 반배례 등 합리성 추구도
> 전통 · 개혁 중간이었던 불교혼례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불교 혼례는 1917년 – 1927년 – 1935년에 이르기까지 십 년 남짓의 간격을 두고 근대불교 선각자들에 의해 지속적인 첨삭이 이루어졌다. 이능화의 '의정불식화혼법' 을 기본 틀로 삼아, 이를 재편한 불교 혼례를 1927년에 백용성(白龍城) 스님과 1935년에 안진호(安震湖) 스님이 각각 〈대각교의식(大覺敎儀式)〉과 〈석문의범〉에 소개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불교 혼례 내용에서, 남녀의 '차별' 과 '차이' 의 문제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들여다보는 일이 흥미롭다.

이능화의 불교 혼례에서 당시 부부는 독특한 혼인 서약을 해야 했다. 이에 따르면 주례법사는 신부에게 먼저 묻는다. "신랑의 원을 따르며, 선행을 함께 닦으며, 무위도를 구하며, 부모를 존중하며, 스승을 공경하며, 친족과 화목하며, 가난한 이를 구하며, 외로운 이를 불쌍히 여겨 크게 자비로우며, 보시에 힘쓰며, 삼세공불의 일을 이어받아 물러섬 없이 게으르거나 싫증내지 않을 수 있겠느뇨?"

신부가 답하면 신랑에게 묻는다. "보살의 성품은 본래 사음하지 않으니, 그대는 신부를 아내로서 자족하게 여기며, 달리 아내를 구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아내 · 첩이나 수호하는 여인, 친족이 보호하거나 약혼했거나 법으로 보호하는 여인에게 탐하는 마음을 먹지 않겠느뇨?"

명백한 불평등서약이다. 신부에게는 남편과 부모 · 스승 · 친족에 대한 의무, 가난하고 외로운 이에 대한 자비, 삼세공불(三世供佛)에 이르기까지 불자로서 총체적인 덕목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해 신랑에게는 다른 여인을 탐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가부장적 관념에 깊이 젖어있는 봉건사회의 시대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백용성 스님은 남녀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담아냈을까. 놀랍게도 1백여 년 전의 그는 완벽한 남녀 평등주의자였고, 몇 가지 의식 속에 그러한 뜻을 거듭 담았다. 우선 부처님께 헌화하는 것을 혼인 서약으로 삼아, "부부간의 맹세 변치 아니하기를 서로 굳게 발원하오니 불보살께서 증명하옵소서"라 맹세함으로써 남녀 구분을 없애고 부부의 도리를 함께 지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랑 · 신부가 부처님께 각각 꽃을 바치되 신부의 꽃은 신랑의 손을 거치도록 했으나, 이를 신부가 직접 바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생담에 충실하기보다는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아울러 신랑 · 신부의 연꽃 색깔을 청색 · 홍색으로 구분하여 음양의 차이는 부각함으로써 '차별' 과 '차이' 를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안진호 스님은 남녀평등에서 중간지점을 택했다. 남녀차이를 부각하는 가운데 남녀평등에 가까운 내용으로 바꾼 것이다. 신랑에게는 나랏일에, 신부에게는 남편의 뜻에 따르도록 다짐케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에게 여필종부의 미덕을 강조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였다. 신부의 헌화 또한 신랑의 손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본생담을 충실히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양한 모색의 시간

근대 초 불교 혼례가 처음 선을 보인 뒤 불자들에게 널리 수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기독교 혼례에 비해 불교 혼례는 새롭게 만든 내용인데다 이를 전파할 적극적인 주체가 부족했기에, 단시일에 확산하지는 못했으나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 혼례의 추이를 알 수 있는 자료로, 당시 월간지 〈불교〉에는 1928년부터 불교계의 소식을 전하는 난에 전국 각지에서 거행한 불전 화혼식을 소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성의 불교 혼례는 각황사에서 전담했고, 각황교당(覺皇敎堂)에서 치르면서 당시 중앙포교사로 있던 김대은(金大隱) 스님이 주례법사를 주로 맡았다. 아울러 1930년 1월호에는 경성을 비롯해 함북 · 경남 · 충남 등 전국 대찰에서 치른 불교 혼례 5건을 소개하였다.

당시는 전통 혼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량 혼례가 등장하던 시절이었다. 1930년대에 안진호 스님이 불교 혼례를 정립하면서 현대적 요소를 대폭 수용한 점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불교 혼례에서도 화동 · 화녀가 꽃을 흩뿌리며 식장에 들어오고, 중요한 순간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가 하면, 식을 시작할 때 종을 치고 폭죽을 터트려 축제 분위기와 장엄함을 돋보이게 한 것이다. 아울러 예물교환보다 염주 등의 신물(信物)을 교환하도록 이끌고, 불전에 큰절 대신 반배례로 바꾸는 등 합리성과 의미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불자들만이 아니라 간소하게 혼례를 치르고자 하는 이들 또한 불교 혼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모든 일을 직접 준비하고 처리하는 대신 사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대행해주니 편리할뿐더러 음식 대접도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배당결혼식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면 낯선 외래문화였기에 선택하기 힘들지만, 불교 혼례의 경우는 전통과 개혁의 중간쯤에 있었던 셈이다.

개량 혼례는 교회 · 사찰뿐만 아니라 신문사 강당이나 대형식당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1950년대를 전후해 신부 화장부터 음식 접대까지 모든 것을 대행해주는 전문예식장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이 무렵부터 여러 주체에 의해 다양한 모색이 따르던 혼례는 점차 전문예식장에 자리를 내주면서 혼례풍속이 크게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마을마다 예식장이 들어서지 않았던 1970~1980년대까지, 농촌에서는 전통 혼례와 불교 혼례를 치르는 이들이 많았다. 속리산 법주사 아랫마을처럼, 사찰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온 이들에게 불교는 삶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일생의 중요한 마디마다 사찰을 찾게 마련이었다.

이에 법주사 사내리에 사는 한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 마을로 시집을 오게 되어 약혼식을 마친 날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남편을 따라 큰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혼인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일가를 이루는 것이기에, 마을 어른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일이 그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것이다. 그 뒤 날짜를 잡아 법주사에서 혼례를 치르고 조촐하게 스님들께 음식을 대접하며 부처님 품에서 가정을 꾸렸다.

오늘날 예식장 결혼문화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이에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이 '스몰 웨딩' 을 추구하고 전통 혼례를 찾는 등 혼례의 다변화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사찰에서도 불교 혼례를 새롭게 모색하는가 하면, 경내를 혼례장소로 개방하거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혼례를 치러주는 등 새 삶을 출발하는 부부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둔 지 오래다. 부부의 소중한 인연을 새기며 함께 불성을 활짝 피우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마음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만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윤인수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소개합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